

| | | |
|--|---|--|
|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 2018년 3월 23일(금) ... (율력 2월 7일) ... Пятница 23 марта 2018г. № 11(11677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3월 25일은 러시아 문화 분야 근로자의 날

3월 25일 러시아에서 문화 분야 근로자의날을 기념한다. 이와 관련 기념행사가 지난 21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펼쳐졌다. 이날 сахалин주 정부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 сахалин주두마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장, сахалин주 문화부 알렉세이 사마린 장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회 엘레나 스톨라로와 의원은 공로를 세운 문화기관 근로자들에게 정부 등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상자 중에는 박 마르가리타(빅코브촌 아동음악학교), 이기동(сахалин미술박물관 제2급 기술자), 하 세르게이(сахалин 오락영화연맹 홍보담당 전문가)도 있다. 시상식은 멋진 공연으로 이어졌다.

▲ сахалин주문화부 장관 사마린 알렉세이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박 마르가리타. (취재: 이에식 기자)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 대선 예비 결과 발표

2018년 3월 18일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지난 19일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 엘라 팜필로와 위원장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3월 19일 9시(모스크바 시간)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선거>자동시스템에 99,83%의 기록이 진행된 가운데 득표율이 밝혀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은 76,66%로 압도적인 표를 얻었고, 파벨 그루지닌은 11,8%, 블라지미르 지리놉스키는 5,66%, 크세니아 솅차크는 1,67%, 그리고리 야블린스키는 1,04%, 보리스 피토브는 0,76%, 막심 수라이킨은 0,68%, 세르게이 바부린은 0,65%를 얻었다. 당시 투표율은 67,49%로 나타났다.

팜필로와 위원장에 따르면 다게스탄 공화국, 모스크바주, 케메로워주, 튜멘주 투표소 7곳에서 선거위반으로 인해 투표결과가 무효로 처리되었다. 대선을 위해 정당, 후보, 사회원

들을 대표하는 47만4500명의 감시단, 관찰자격을 가진 선거위원회 위원 10만5000명, 언론인 1만500명, 세계 115개국을 대표하는 국제감사인 1513명이 투표소를 지켰다.

сахалин에는 선거자동시스템의 100% 기록 결과로 득표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66,7%, 파벨 그루지닌 17,97%를 받았고, 블라지미르 지리놉스키는 8%를 넘었고, 크세니아 솅차크는 1,69%를 득표, 나머지 후보들을 1%를 넘지 못했다. сахалин주에 투표 참가율은 61,22%에 달했다. 2012년 대선에서 투표 참가율은 57,2%였고 블라지미르 푸틴은 56,3%(12만8500명)를 득표했다. 이번 선거에는 동포들의 적극 참여로 사회원 대표 선거감사인 중에는 한인회 관계자가 많았다. 또한 국제선거감사인인 сахалин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도 러시아 대통령선거에 참가했다.

(본사기자)

<아시아의 아이들> 참가국 대표단들 сахалин 방문

4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의 아이들> 제1회 국제동계스포츠대회가 сахалин에서 처음 개최되면서 적극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 대회에 2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20개국과 러시아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45개의 팀 중 절반이 유·청소년 선수들이고, 절반은 공식대표, 사범, 심판들이다. 대회 준비를 위해 сахалин에서 세미나-회의가 개최되면서 아시아의 20개국의 올림픽위원회와 스포츠기관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들이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сахалин을 방문했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유·청소년 스포츠의 발전과 대회의 올림픽정신을 홍보하고, 경기가 진행될 сахалин의 동계스포츠 제반시설과 종합스키단지, 바이애슬론 경기장, 대회 때 선수들을 위한 교통, 숙박, 음식 등의 여건들을 살피며 평가하고 세미나와 회의를 열어 논의하는 데 있었다.

(3면에 계속)

단신

러시아정부, 쿠릴개발에 67억 지급

2018-2020년까지 러시아 정부는 쿠릴열도 개발에 사회제반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배당과 사용 규정을 확정된 가운데 67억 루블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이투루프섬에는 새 학교 2곳, 쿠나쉬르섬에는 새 유치원-학교가 건립되고, 지역 병원이 재건축되며 파라무쉬르섬에는 병원, 학교와 스포츠, 건강 종합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십 대의 교통편 및 동력 시설물들이 개건되고 수리될 전망이다.

сахалин주는 260억 루블리를 지급받아 의료기관 4곳, 학교와 유치원 19 곳, 스포츠센터 12곳, 박물관 한 곳을 건축하고 교통편 및 공공시설물 62개 대상을 현대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극동개발부 회의에서 알렸다.

투이(TUI)여행사 сахалин 관광에 관심

сахалин주 정부는 지난 19일(월) 세계 최대 여행사 중 하나인 투이(TUI)여행사와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주정부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에 따르면 관광은 сахалин지역 경제발전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며 특히 <고르니 워스투흐> 스포츠관광단지(리조트)를 중심으로 하여 겨울관광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투이여행사 대표들을 비롯해 연방관광청 전문가들 총 41명이 сахалин을 찾아 1주일 내내 지역의 관광적 잠재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문가들이 이미 몇 가지 지적한 점은 항공료를 낮추어 일관된 항공료로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현재 작성 중인 개발에 따른 제반시설 구축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과제는 패키지 여행(항공권, 숙박, 음식과 견학프로그램) 영업을 위한 전략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투이 여행사 사업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은 땅끝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сахалин과 캄차트카이다.

이미 주정부와 투이 여행사는 작년부터 협력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주 미술관, 행복을 가져다 주는 다기 소개

3월 23일(금) 17시 30분 сахалин주 미술박물관에서 <집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다기> 주제 아래 전시회가 열린다. 처음으로 сахалин주 미술관은 모스크바 국립동양민족예술박물관과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기획의 목적은 сахалин 관객들에게 차의 전통과 사상, 역사문화적 독특성과 연관된 민족문화의 맥락에서 극동지역의 실용장식품을 소개하는 데 있다.

소규모 전시회에서는 19초 - 20세기의 중국, 일본에서 제작된 물잔, 술잔, 다기가 소개된다. 여기에 토시카타 미주노의 <일상의 다도>화집의 그림들도 전시회를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품들은 сахалин주 미술관의 소장품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의 개인 소장품들이 추가되어 전시된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국립동양민족예술박물관 알렉산드르 세도브 관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회 입장은 자유다.

| | | |
|--|-------------------|---|
| 새고려신문 | 2018년 신문주문 |  |
|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сахалин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 | |
|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сахалин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 | |
| (본사 편집부) | | |

이 왜채슬라브 호도예위츠(24세) 선생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학교의 교사이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젊은 교사로 인기가 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지는 곧 2년이 된다.

학창시절 그는 수학을 좋아하고 앞으로 이학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려는 생각도 했었다 한다. 그리고 엔지니어인 어머니도 공감해주었으나 11학년 졸업반이 되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10학년때 <꽃보다 남자>란 한국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청소년들의 이야기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여학생에게 이 드라마를 추천했죠. 이 학생도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포도나이스크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을 알아내고 함께 시 청소년예술창작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수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선생님은 예브게니아 미하일로브나(이진선) 선생님이셨어요. 그 당시 겨울이었죠."라고 이 선생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이 왜채슬라브 호도예비츠 선생의 어머니는 러시아인이고, 아버지는 사할린 동포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갖긴 했었다고 한다. 영주귀국하신 할머니가 안산 고향마을에 입주 후 왜채슬라브 선생은 2002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할머니댁을 찾았다고 했다. 그 이후로 여러 번 한국을 다녀가면서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 남아서 오래 살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아직 어리고, 한국 말도 잘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한다.

한국어를 배운 지 3-4개월이 될 때쯤 이진선 선생님의 추천으로 사할린국립대가 개최하는 한국어 말하기대회에 출전 제의를 받았다. 주제는 <한국어는 내 삶의 한 부분>이었다. 필자는 이 말하기대회 심사위원에 속해 있었다. 그때부터 나도 왜채슬라브를 기억하게 되었다. 솔직히 그 당시 그의 한국어는 많이 부족했지만 왜채슬라브가 낸 용기,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반해 심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재미있고 마음에 든다

동양김나지아 한국어 교사 이 왜채슬라브 호도예위츠



사위원들은 그에게 3위를 주었다.

한국어에 푹 빠진 청년은 사할린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사법과정)를 전공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의 생각에는 외국어 능력이 직업상 스펙 중 하나로 들어가지만 한국어 교사란 직업이 아들에게는 성격상으로 맞지 않을 거라고 했다. 아버지는 영어도 잘 하고 한국어 전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다고 한다. 아무튼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이 선생이 오로지 입학 지원을 한 곳은 바로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였다. 한국어를 좀 배웠기 때문에 처음 1학년까지는 공부하기가 수월했다고 한다. 2학년 지나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한국어 실습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한다. 때마침 경주대학에서 6개월 한국어코스가 있어 그는 경주대학에서 유학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지만 사실은 교사로 취직할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대학 4학년 시절 교육실습 시 왜채슬라브 선생은 대학생들을 가르쳐본 후에야

교직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마침 대학을 찾아온 제9동양어문학교(현 동양김나지아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가르침) 김 나탈리아 블라지미로브나 교감(한국어 교사)이 한국어 교사 한 분이 필요하며 졸업생들을 초대했다. 앞으로 통역원으로 활약하고 싶었던 왜채슬라브 선생은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하고 2016년 가을부터 이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그는 5학년(3학반), 6학년(2학반), 7학년(1학반), 9학년(3학반)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일주일에 33수업시간(기준 18시간)이나 된다고 한다.

이 선생은 교직에 대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재미있고 마음에 든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즐기며 좋아하는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한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다. 학생들이 한국어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교사로서 학생들과 개인별 수업을 할 때 어렵다고 한다.

2017-2018 학년도 첫 학기부터 5학년생들을 가르치게 된 이 선생은 "한국어를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워주고 한국어 실력을 쌓도록 살펴주는 게 재미있습니다."라고 했다. 특히 5학년 수업 준비에 그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다른 학년들의 프로그램은 있지만 5학년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에 교사들은 여러 교수법과 자료들을 사용할 수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 선생도 수업시간에 카드게임, 비디오, 만화, 그림 등을 사용하고 배운 것을 그림, 영상 통해 받아쓰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상 또는 그림에 사람이 걸어가는데 모습이 보이면 한국어로 <걸어간다>라고 써야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재미있게 가르치는데 작년 여름에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에서 5주 연수를 받은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다.

2년의 교사의 경험이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이 선생은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 선생은 항상 바쁘다. 인터뷰 할 시간도 겨우 낼 수 있었다. 학교에서도 수업이 많고 학교 외에 현대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춤(힙합 등)에 대한 관심은 학창시절 10학년 때부터 생겨 대학에 가서도 계속 춤을 추었다고 한다. 현재는 대학친구들과 함께 댄스 스튜디오를 공식적으로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학교에서도 현대춤(K-팝)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다. 그가 가르친 춤 동아리의 여학생들은 여러 콩쿠르에서 1등 했다고 이 선생은 자랑했다.

대학시절에 그는 '빅토리아'라는 처녀에게 반해 5년 연애 끝에 작년 가을에야 비로소 결혼했다고 한다. 이 선생에게 물었다.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길 좋아하는가?"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아내와 시간을 보내길 좋아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의 아내 빅토리아도 일본어 교사다. 두 교사는 때로는 서로 상의하고 교육적 아이디어도 공유하며 서로를 성장시키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사할린국립대 대학원 과정(교육학)에 입학하여 공부와 교직을 겸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이다.

부드러우면서 자신감이 있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어려운 교사직에서 첫 걸음을 딛고 있는 이 왜채슬라브 선생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직하고 아이들에게는 희망차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이라 여겨진다. (배순신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국립대, <재능>축제 참가자 접수 준비

사할린국립대는 15년간 <재능> 청소년예술창작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 축제의 목적은 대학생들과 학교 학생들의 예술창작적 자아실현을 돕고, 재능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에 있다. 축제는 사할린주내 교육기관 중에서 청년예술창작에 선두적 콩쿠르로 평가되고 있다. <재능>축제는 열린 행사로서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청년들에게도 참가의 기회가 주어진다.

축제 참가자들은 <음악>, <춤>, <연극과 독창적 장르>, <신문방송>과 <공간예술> 방면에서 경쟁하게 된다.

콩쿠르 경쟁의 마지막에 심사위원들은 우승자와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면서 축제를 매듭짓는다. 시상식은 축제 마지막 날 갈라공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3월 25일까지 메일 talantsakhgu@gmail.com로 접수한다. 3월 25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등록이 안 된다.

조직에 대한 문제는 주소 콤무니스찌체스키 프로젝트 33, 청년정책국, 전화 (4242) 45-23-10로 문의를 바란다고 사할린국립대 홈페이지에서 알렸다.

СахГУ готовится принять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Талант"

Уже 15 лет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роходит фестиваль молодеж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Талант". В этом году он пройдет с 29 марта по 1 апреля. Этот фестиваль направлен на содействие творческ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студентов и школьников, а также поддержку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Фестиваль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как лидирующий конкурс молодеж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реди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естиваль "Талант" является открыт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что озна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для лиц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и молодежи, относящейся к категории инвалидов.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соревнуются по та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как "Музыкальное", "Танцевальное", "Театральное и оригинальный жанр", "Журналистика" и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о".

В конце конкурсного состязания жюри подводит итоги фестиваля, определяя победителей и обладателей гран-при. Награждение лучших проходит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день на гала-концерте.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5 марта включительно на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talantsakhgu@gmail.com. Заявки, поданные после 25 марта, к рассмотрению не допускаются.

По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м вопросам можно обращаться по адрес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3, департамент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тел. (4242) 45-23-10, сообщает сайт СахГУ.

제 1 회 시 유, 청소년무용 콩쿠르 참가자 시상

3월 18일 <로지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회관에서 제1회 시 유, 청소년무용 콩쿠르의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갈라 공연이 조성되었다. 6세부터 18세까지로 구성된 무용단들 단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는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화려한 축제와 같았다.

심사위원들은 도시의 참가 무용단들의 단원과 지도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심사위원의 대표는 빅토르 세르쉴로브이며 그는 러시아연방 명예 문화부 직원, 언론인, 교육가, 모스크바 문화국 무용전문가이다.

다양한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들은 <어린시절(제트스트워)>무용단 (제2아동예술학교), <아쿠아렐>무용단 (제2아동예술학교), <깜짝선물(서프라이즈)>무용단 (<메트타> 시 아동예술센터), <사할린의 불꽃> 무용단(청소년예술창작회관), <춤의 변형>(사할린예술전문학교), <호로쉬키>무용단(제2아동예술학교), <시린>무용단이 선정되었다.

<이미지 표현력과 높은 연기력>으로 심사위원들의 특별상을 수상한 팀은 사할린예술전문학교의 <댄스의 변형>무용단이다.

Награждены участники Первого городского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18 марта в ГДК "Родина" состоялся Гала-концерт и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Первого городского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Это был красочный праздник музыки и танца,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ил более 200 участников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от 6 до 18 лет.

Жюри высоко оценило стар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города и 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ем жюри являлся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Ф, публицист, педагог, эксперт-хореограф департамента культуры Москвы Виктор Шершнёв.

Обладателями дипломов лауреатов I степени в различных номинациях стали — ансамбль "Детство" (ДШИ №2), ансамбль "Акварель" (ДШИ №2), ансамбль "Сюрприз" (ГДХЦ "Мечта"), ансамбль "Сахалинские искорки" (ДДЮТ), ансамбль "Танцевальные метаморфозы" (Сахалинский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ансамбль "Хорошки" (ДШИ №2), ансамбль "Сирина".

Также был вручен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жюри "За создание образа и высокое исполнитель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им был награжден ансамбль "Танцевальные метаморфозы"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8면에 계속)

제8회 영화제를 앞두고 멀티미디어 전시 열려

지난 20일(화)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사할린, 자서전> 멀티미디어 전시회 개막을 앞두고 사할린주 문화부 사마린 알렉세이 장관, <사할린 섬> 박물관 피르소와 옌게니아 관장, 사할린국제영화제 <크라이 스웨타(세상의 끝)> 조직위원회 공동 위원장 아그라노위츠 알렉세이, <사할린, 자서전> 전시회 큐레이터 프레오블라젠스키 키릴, 영화제 소속 <직접해> 도시개발작업실 지도자 알렉세예스키 미하일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열리는 멀티미디어 전시회는 3월 23일 저녁에 공식적으로 개막된다.



전시회에 출품작들은 사할린 국제영화제 <크라이 스웨타>의 4개(어린이 애니메이션작업실, 유·청소년 영화연구실, <직접해> 도시개발작업실과 <큰 이야기> 언론활동작업실)의 창작작업실의 작품이다.

기자회견 시 많은 작품은 아직 작업 중이어서 전시회가 어떤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조직자들을 비롯한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다. 전시는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열려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에서 아그라노위츠 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제8회 사할린국제영화제는 2018년 8월 24일-31일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순신 기자)

<아시아의 아이들> 참가국 대표단들 사할린 방문

(1면의 계속)

지난 21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인도, 일본 등 대표단들이 파르코와야산, 스키롤러트랙, <고르너 위스두흐 스키장>, <크리스탈> 빙상회관과 <아레나 시티>스케이트장 등을 돌아보고 22일에는 <위스토크>스포츠 캠프에서 다채로운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2019년 2월에 사할린에서 처음 개최될 <아시아의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대회에서는 8개 종목(회겨스케이팅, 하키, 쇼트 트랙, 알파인 스키, 스노우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 컨트리 스키와 스키점프)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첫 <아시아의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는 유리 트루트네브 러시아 연방 부총리이며 러시아 대통령 극동연방구 전권대

표가 맡은 가운데 사할린주 정부는 이 대회를 통해 사할린, 쿠릴지역의 관광의 잠재력을 보여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유, 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에는 국제스포츠연맹들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심판 600여 명이 참가하며 자원봉사자는 1000명으로 16스포츠 종목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현재 주내에서는 동계스포츠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4월에 팀 지도자들을 위한 첫 캠프를 열 계획입니다" 라고 <아시아의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대회의 사무총장 블라디미르 막시모브가 밝혔다.

23일(금) 15시에는 <아시아의 아이들> 국제동계스포츠대회까지의 남은 날을 알리는 카운터기 작동 행사가 주정부 청사 앞 광장에서 진행된다.

조용필 · 이선희 · 레드벨벳 등 평양시 2회 공연...31일 방북

가수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등 국내 대중 가수들로 구성된 남측 평양 예술단 160여명이 오는 31일부터 평양에서 2차례 공연을 한다.

평양 공연 음악 감독이자 남북 실무접촉 수석대표를 맡은 작곡가 겸 가수 윤상씨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관련 실무접촉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이 이날 합의한 5개 합의 공동보도문을 보면 160여명으로 구성된 남측 예술단은 오는 31일부터 4월3일까지 평양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2차례 공연을 한다.

남측 예술단 160여명에는 가수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 10여명의 대중 가수들이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일정 조율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사정에 따라 가수 한두 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은 평양 공연 경험이 있다. 조씨는 2005년 8월 평양 류경 정주영체육관에서 '조용필 평양공연'을 했고, 이씨는 2003년 같은 곳에서 통일음악회를, 윤씨와 최씨는 2002년 'MBC 평양 특별공연'에 참여했다.

관심을 모았던 아이돌 그룹도 포함됐다. 걸그룹 레드벨벳과 소녀시대 서현씨가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현씨는 지난달 북측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 공연에서 깜짝 합동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윤 대표는 이들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북에서도 '최고의 가수'라는 명칭을 갖고 있을 만큼, 물론 이념과 체제와 관계없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수의 아이콘으로 각인돼 있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선곡 관련해서는 이날 구체적인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추후 사전점검단 방북이나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전통곡이나 민요, 관현악이 아닌 대중가요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선곡에 관한 부분도 오늘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가하는 아티스트들의 성향에서 또 그들이 원하는 곡과 우리가 원하는 곡들에 대한 조율이 쉽지는 않았다"며 "그것은 꼭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잘 모르는 노래들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합동공연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형일 통일정책협력관은 "1회 공연은 우리측 공연 위주가 될 것 같고 2회 공연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합동 공연을 좀 추진하는 거로 얘기했

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연날짜는 유동적이지만 첫번째 공연은 4월1일이 유력하다. 그의 예술단의 이동경로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숙소는 북측에서 제의한 고려호텔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남북은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남측 사전점검단이 22~24일 평양을 방문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예술단엔 취재단, 지원인력, 공연스태프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연은 북한이 지난 5~6일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했을 때 남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공연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예술단의 방남에 대한 답방 의미도 있다.

한편 이날 실무접촉은 오전 10시 시작해 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우리 측에서는 윤 수석대표 등 3명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현송일 단장(수석대표) 등 3명이 나왔다.

이날 실무접촉에는 공연기획·연출자 출신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박 협력관은 "지원인원으로 갔고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2018.03.20)

동북아평화연대, 서울에 고려인문화센터 짓는다

정기총회 열어 사업계획 확정... 김봉준 4대 이사장 취임

북방동포 지원 비정부기구(NGO)인 동북아평화연대가 고려인문화센터 건립과 서울~평양~모스크바 1만5천km 자동차 랠리 등을 추진한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린 동북아평화연대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북아평화연대 제공]



동북아평화연대 김봉준 4대 이사장(왼쪽)이 도재영 3대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북아평화연대 제공]

동북아평화연대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지역에 들어설 고려인문화센터는 고려인(러시아를 비롯한 CIS 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문화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협력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고려인공동체 사무실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평양~모스크바 자동차 랠리는 2014년 전(全)러시아 고려인연합회(OOK) 등이 펼친 '고려인 이주 150주년 국제오토랠리'의 답방 형식으로 추진된다. 2014년 7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출발한 고려인 랠리팀은 우즈베키스탄과 연해주를 거쳐 8월 8일 북한에 입국했으며 16일 휴전선을 통과한 뒤 부산까지 한반도를 종주했다.

올해는 광복절을 전후해 고려인과 한국인이 함께 팀을 이뤄 40일간 한반도를 종단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평화아카데미 개설, '평화의 길' 역사 탐방, 경기도 안산 고려인센터 운영, 고려인 청소년 주말학교와 중국동포(조선족) 청소년 어울림 주말학교 운영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2019년 삼일절 100주년을 앞두고 '동북아 평화시대 100년'을 조망하는 세미나 등도 준비하고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제9기 임원 선임안도 통과돼 김봉준(64) 제4대 이사장의 취임식과 도재영(80) 제3대 이사장의 퇴임식도 치러졌다.

신화미술관장인 김봉준 이사장은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한 화가 겸 조각가로 민중문화운동협의회 기획국장, 복사골마당 대표, 부천노동상담소장, 원주민예총 회장, 동북아평화연대 문화위원장·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려인, 조선족, 재일동포, 남북동포는 세계대전과 냉전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한반도가 지구촌 마지막 냉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지금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찾고 시민단체들과 협력하며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2012년부터 6년간 동북아평화연대를 이끌어온 도재영 3대 이사장은 퇴임사에서 "이사장 재임 시절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은 2014년 고려인들이 차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오던 순간"이라며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아 동북아평화연대가 창대한 나무로 커가는 것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2001년 10월 창립된 동북아평화연대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의 동포를 위해 농장 건설, 농기계 지원, 학교 건립, 도서 기증, 장학 사업, 문화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펼쳐왔으며 국내 귀환 조선족과 고려인을 위해 한글교실과 청소년 주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Лидеры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поздравили Путина с победой на выборах

Лидеры как Северной, так и Южной Кореи поздравил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победой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на продолжение развития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председатель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им Чон Ын направил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поздравительную телеграмму. "Искренне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очередной победой на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вторное избрание президентом означает огромную поддержку и доверие Вам, выраженное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а", - цитирует ЦТАК поздравительную телеграмму, направленную от имени Ким Чон Ына.

В послании также выражается надежда и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имеющие долгую историю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Ф и КНДР продолжат развиваться, "отвечая требованиям и пожеланиям наших народов". Ки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олитик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ильной России, позволит достигнуть еще 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же заявили, что еще накануне лидер РК Мун Чжэ Ин направил в адрес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телеграмму, в которой поздравил российского лидера с победой на выборах. Мун при этом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продолжение развития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дружбы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Кореи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20 марта 2018 г.)

Сахалинцы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синхронный спуск на горном склоне «Роза хутор»

С 16 по 24 марта в Сочи на горнолыжном курорте «Роза хутор» проходит Конгресс снеж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На курорт съехалось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из девяти стран мира, включая Австрию, Андорру, Аргентину, Белоруссию, Испанию, Китай, США и Украину.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официальные



делегации спортивных 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орнолыжных клубов, ассоциаций актив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горных курортов, отраслевого бизнес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эксперты.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 своеобразная репетиция перед основны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онгрессом инструкторов по снеж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на курорте «Роза Хутор» в 2021 году. Начиная с 1969 года, раз в четыре года, его принимают разные страны мира, Россия впервые получила право на его организацию, - сообщил ВРИО президент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горнолыж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Сергей Трикин.

Целью конгресса снеж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на «Роза Хутор» является укреп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вязей России, стран СНГ, Европы и Азии, обмен опытом, обсуждение задач и проблем развития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программе: марафон презентаций горнолыжных курортов, выступления демо-команд, круглые столы, деловые игры и встречи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ажных задач и проблем. Среди актуальных тем – вопросы управления горнолыжными комплексами, привлечение партнеров для развития, стандарты подготовки горнолыж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На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поехала также и демо-команд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оставе которой 15-летний Вячеслав У, обладатель двух медалей (серебряная – слалом-гигант, бронзовая – супер-слалом) Всемирных зимних игр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в Австрии.

Как сообщила его мама,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должны представить программу по синхронному спуску с горного склона.

(Наш корр.)

В Москве состоится презентация двухтомника Романа Хе

27 марта 19 часов в Москве в Доме книги "МОСКВА" на Тверской состоится презентация двухтомни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эта, писателя, барда Романа Хе. Он пишет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Первый том - «Нота ЛЯ» - это сборник его необыкновенных стихов и прозы. Вот что пишет Елена Камбурова в предисловии книги:

...«Нота ЛЯ» Романа Хе несомненно такая «соединяющая» книга, как ёнбун (с корейского) «витающий всюду, как пыльца цветов, потому и каждый находит свою половину...» Это о взаимной любви из одноименного стихотворения из этой книги, наполненной удивительными образами, откликающимися в душе ассоциативным рядом из лучших мгновений жизни – детства, конечно, прежде всего. И совсем не факт, что «витающий всюду» соединит только двоих, эта книга соединит без числа те души, что не разуверились в дружбе, верности, искренности, те, что услышат музыку серебряных лунных лучей, натянутых струнами на гитару-гусли, вдохнут аромат ромашковых холмов. У кого сожмется сердце при прощании с мамой (не своей!), кто, дожив до седых волос, радостно пускает в плавание по луже бумажный кораблик...

Второй том - «Светлая ночь» - это удивительные переводы корейских «сиджо», сборник (на корейском!) которых он совершенно случайно приобрел в книжном магазине «Современник» в конце 80-х годов. «Изданная в Пхеньяне антология корейской средневековой поэзии каким-то чудом оказа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 пишет Роман о предыстории переводов сиджо с корейского.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средневековые сиджо переводили Анна Ахматова и Александр Жовтис (с подстрочников), Роман переводит с языка оригинала. Корейские сиджо в оригинале – это трехстишия. Именно Роман Хе был первым, кто перевел сиджо трехстишиями, а не шестистишиями, как переводили до него.

Думаю, издание двухтомника Романа Хе, станет настоящим

подарком для истинных любителе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ЛОВА.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презентация его двухтомника состоится и на Сахалине.

Его двухтомник проиллюстрирован рисунками сына – Сергея Хе. Это уже четвертый опыт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Поэт пробудет в Москве с 25 марта по 11 апреля. До отъезда из Москвы планируется еще одна встреча с поэтом в хорошем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б этом хлопочут ценители его таланта.

ВИКТОРИЯ БЯ

СПРАВКА

Хе Роман (Хе Нам Ёги) – поэт, бард, переводчик,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с 2000 года), лауреат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00 г.), прем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ы (1991 г.), лауреат различных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емий.

Родился 18 сентября 1949 года в городе Томар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ончил восьмилетнюю 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1957–1965 гг.). Работал плотником, каменщиком-формовщиком, музыкантом, сотрудничал с редакцией газет «Ленины гилло» («Сэ коре синмун»),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Советский Сахалин», редакцией 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ГТРК «Сахалин», «Урималь бансон» КТВ и др.

С 1999 года живёт в 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оман Хе сочиняет стихи с девяти лет. До двадцати пяти лет он писал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убликовался в журналах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Аврора»,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Дружба народов», в сборниках «Антология русского верлибра», «День поэзии», «Сахалин» и в других изданиях. Переводил сиджо из классической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Некоторые свои стихи островной поэт

исполняет под гитару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ведёт большую 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работу, выступая с исполнением стихотворений классиков русской и зарубежной поэзии.

Его стихотворения переведены на многие языки стран мира.

Книги:

- Гудящие раковины (1984 г.);
- Ёнбун, или Полёт бабочки (1996 г.);
- По сорочьему мосту (1999 г.);
- Автопортрет с солнечными зайчиками (2004 г.);
- Двухтомник ИЗБРАННОЕ/ «Нота ЛЯ», «Светлая ночь» (2018 г.)

Известный русский писатель Анатолий Ким о поэзии Романа Хе:

«В Корею сосна — самое любимое дерево, и есть отдельные знаменитые деревья, древние веком своим, которые названы по именам, как люди, и охраняются государством. Возле таких деревьев вывешены таблички, кратко и почтительно повествующие о жизни зеленого патриарха.»

«Стихи Романа Хе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ю грезы одной из замечате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сосен, волею судьбы выросшей под неб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России. Он пророс в русском слове — но смотрится и слышится как подлинная корейская сосна, раскачиваемая ветром, украшающая собою иной ландшафт и обратившая свои зеленые ветви к иному небу, чем небо родины. Красота его стихов 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добавляет новые черты русской поэзии. Дзенская простота и величайшая скромность словесного материала прижились на новой почве и дали заметные результаты. Среди многих стихов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верлибра стихи Романа Хе выделяются естественностью своего звучания, убедительностью именно данной формы поэзии, — и выражением самых затаенных, воистину прекрасных поэтических сторон души корейского человека.»

перелетные **люди**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на Сахалине

супер скидка на проживание **15%** для всех 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с 01/01 по 31/03 реклама

СКИДКА ДЕЙСТВИТЕЛЬНА ТОЛЬКО ПРИ БРОНИРОВАНИИ ПО ТЕЛ.: 8(4242)498-400 И ЧЕРЕЗ E-MAIL: RECEPTION@GAGARINHOTEL.RU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подтвердили намерение сотрудничать в 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облем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обл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пятницу вечером (по кор.вр.) 35-минутного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президен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США Мун Чжэ И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основная цель Сеула, «важный шаг в обеспечении мира во всём мире, не говоря уже о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зиция Сеула остаётся неизменной: никаких уступок в решении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не будет ни при каких условиях.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договорились также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совместные действия, прилагая усил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и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ов. Между тем,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Белого дома, оба лидера согласились с тем, что «конкретные шаги, а не слова, сыграют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роме того, они выразили «осторожный оптимизм относительно последнего развития событий 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ждёт светлое будущее, если она пойдёт по правильному пути». В ходе разговор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дтвердил намерение встретиться до конца мая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он Ыном.

Труппа артистов РК даст концерты в Пхеньяне

Во вторник по итогам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Юга и Севера в по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Пханмунчжом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б отправке в Пхеньян южнокорейской труппы артистов в составе 160 человек. В её составе такие популярные певцы как Чо Ён Пхиль, девичья группа Red Velvet, бывшая участница группы «Сонё сидэ» Сохён. Визит намечен на период с 31 марта по 3 апреля. Концерты состоятся в Восточно-пхеньянском Большом театре на 1,5 тыс. мест и Дворце спорта имени Чхон Чжу Ёна на 12 тыс. мест.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труппы назначен Юн Сан, популярный певец и композитор,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лял южнокорейскую делегацию на рабочих переговорах.

Учёные Сеуль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разработали уникальную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ую руку

В Сеуль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разработали уникальную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ую руку-манипулятор. Авторами разработки является коллектив учёных факультета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и авиатехники во главе с профессором Чо Гю Чином. «Рука» сложена в виде шестигранника длиной 40 миллиметров и установлена под дроном, затем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её можно растянуть до 700 миллиметров, что в 17,5 раза длиннее, чем в исходном состоянии. Робот весит всего лишь 30 граммов, но может выносить силу сжатия до 12 килограммов. По сообщению коллектива, идею создания подобного механизма подсказал принцип оригами – фигурок из бумаги. По словам экспертов, в отличие от аналогов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х рук, которые оснащены множеством приводов и проводов, изобретение учёных Сеуль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оборудовано лишь одним приводом и одним проводом. По словам профессора Чо Гю Чина новую разработку с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 извлечении предметов из труднодоступных мест, например, между ветвями дерева. Фотография роботизированной руки украшает обложку последнего номера американского журнала Science Robotics.

В РК растут расходы на част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асходы на част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обили рекорд.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реднемеся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ет 254 доллара. Это на 5,9% больше, чем в 2016 году. В отличие от поза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иболее часто родители отправляли детей на частные курсы гуманитарных дисциплин, такие как музыка, физкультура и рисование. При этом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рос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расходов среди людей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доходов. Так, у населения с доходом 7 млн вон или 6.600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427 долларов. В то же время у граждан с доходом ниже 2 млн вон или 1887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асходы составили в среднем 87 долла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азрыв между этими двумя группами оказался почти пятикратным.

(RKI)

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ВЕЛИЧАЙШАЯ СДЕЛКА ВЕКА"?

Удивить сейчас чем-то все человечество совсем не просто. Любая новость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простой обыденностью, эдаким кадром-однодневкой в калейдоскопе событий. Однако, наметившаяся встреча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не сходит почти уже две недели с мировых таблоидов и миллионы, если даже не миллиарды, простых людей вопрошают: что бы это значило? Для политиков, дипломатов, ученых и журналистов наступила горячая пора головоломок о хитроуплетениях корейского узла и его возможной развязки. Однажды, как известно, уже пробовали разрубить мечом войны «гордиев узел» Кореи, но эта попытка не принесла победы ни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а напротив – крепче затянула его.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пряже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днялась до предельной отметки. Алармисткие заголовки пестрели во всех газетах и журналах: Война в Корею начнется завтра! Корея на тропе войны!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вижутся к войне! КНДР: война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неминуема! ... Что же,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похоже окончательно заканчивается, так и не начавшись. Не раз в своих очерках и выступлениях я убеждал, что новая вой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евозможна, а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Будет ли нынешний виток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устойчивым и перерастет ли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процесс ми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страны – покажет время. Осталось ждать недолго, так как в мае должен состояться первый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от которого многого ожидают, но вряд ли кто может сказать определенно, чем он закончится.

Удивительные метаморфозы!

Вся миров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с неподдельным интересом восприняла новость о возможной встрече Трампа и Ким Чон Ына. Казалось бы, что же необычного в том, что главы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договариваются о встрече? Если речь шла бы о странах, имеющих между соб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налаж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то тогда саммит превращается чуть ли не в рутинную встречу. Но тут случай особенный, если не сказать уникальный. Никогда в истории президент США не встречался с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з клана Кимов: ни с первым, ни со вторым. Желаний встрети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ни Трамп, ни третий Ким также не изъявляли. Более тог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они обменялись взаимными оскорблениями, причем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езидент обозвал Ким Чон Ына «little rocket man» («маленький человечек с ракетой») и «sick pirru» (больной на голову щенок), а тот в ответ назвал Трампа – «mentally deranged US dotard» («психически больным, американским маразматиком»). В ответ на ставшие привычными угрозы из Пхеньяна превратить Южную Корею или США в «море огня», из Вашингтона впервые прозвучали не менее воинственные обещания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то есть «огня и ярости, невиданных доселе миром». Всем, кто читал газеты или слушал-видел мировые новости, запомнилась совсем не детская словесная перепалка Трампа и Ким Чон Ына по поводу того, у кого «кнопка» больше (Имеется ввиду, так называемая, «ядерная кнопка»).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обыватели уже запаниковали, что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й» хозяин Белого дома и вправду может нажать свою «кнопку». А Север не собирался сдаваться и обещать, что остановит свою ракетно-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Вот в такой напряженной ситуации Олимпиада в Пхёнчхане, участие в не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официальной делегации, спортсменов, артистов и музыкантов из КНДР, а также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с высокими гостями из Пхеньяна и последовавший визит спец. посланников из Сеул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огасили фитиль пороховой бочки.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Ким Чон Ына, прибывшая в составе официальной делегации КНДР на Олимпиаду в Пхёнчхане передала президенту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глашение посетить Пхеньян, чтобы провести там двусторонний саммит. Мун Чжэ Ин дал согласие при условии, если на встрече будут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по ключевому вопросу –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 этом, он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США и КНДР в решении этого архиважного дела – превращ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безъядерную зону. В связи с подготовкой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и для согласова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КНДР и США, в Пхеньян отправилась южн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из 10 человек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Чон Ый Ена –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ходе встречи делегации с Ким Чон Ын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пецпосланник передал письмо от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а. В отве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ыразил «принципиальную волю и твердое желание продвигать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согласился «немедленно принять мер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стречи с Сеулом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Ким Чон Ын выразил также готовность лично встретиться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и просил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пецпосланника передать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резиденту его предложение.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в Сеул, доложив президенту Мун Чжэ Ину результаты переговоров, Чон Ый Ен немедленно улетел в Вашингтон, чтобы сообщить американским официальным лицам о результатах визита в Пхеньян и передать устное приглашение президенту США Дональду Трампу на личную встречу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Чон убедил Трампа, что Ким Чон Ын настроен на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а 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в обмен на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ключение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и установл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США, а также введение моратория на ракетно-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на период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оведения саммитов с Мун Чжэ Ином и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Моментальное согласие Трампа встретиться с Ким Чон Ыном произвело эффект новостной бомбы, взрыв которой вызвал бурную реакцию миров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итоге, обсуждение предстоящего саммита занимает центральное место в блок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овостей последних дней.

Мнения о предстоящем саммит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есь народ с ликованием поддержал новые инициативы Ким Чон Ына, одержавшего яркую победу в борьбе за мир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ыразившим волю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 свершению великой мечты – объединению родины и вынудившего Сеул принять приглашение к личной встрече». Инач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быть не могло, ведь все «решения лидера страны – верные, справедливые и победоносные!»

Пожалуй, больше всего противников, от ярых и явных до пассивно не одобряющих, в самой Америке, причем причина заключается не в Киме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а в президенте Трампе, который с самых первых дней пребывания в Белом доме подвергается острой критике своих оппонентов. В Америке немал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опасаются, что Трамп не справится на переговорах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ттл ракетменом». Сила Ким Чон Ын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он сам принимает любое решение, поэтому его статус – «decision maker» (принимающий решение), в то время как Трамп должен считаться с тем, как отнесутся к его намерениям в Конгрессе, Пентагоне, в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и даже в самой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литики и эксперты разных стран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переданное из Пхеньяна в Вашингтон приглашение с осторожным одобрением. Канцлер ФРГ Ангела Меркель, подчеркнула значимость жесткой санкционной позиции Запада, вынудившую Пхеньян идти на переговоры. Известный эксперт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Андрей Ланьков также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чрезвычайная жесткая санк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вкупе с воинственными выпадами Трампа, вынудили Ким Чон Ына пойти на уступки и выразить готовность к переговорам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 США. Другой российский ученый –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выразил несколько иное мнение: «...что, если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и сыграло какую-то роль, то отнюдь не решающую». Относительно вероятности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мнения у росси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оказались также разными. Если одни считали, что вопрос его проведения уже решен, то Георгий Толорая оценил изначально вероятность встречи Трампа и Ким Чон Ына на 30%, хотя его оценка могла за прошедшую неделю измениться.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Ким,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ведения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В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вершился капремонт и изменился формат работы

В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завершил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ервого этажа, а вместе с ним полностью изменилась система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изошли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режливая поликлиника», направленного на повы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и комфортности пребывания в учреждении.

Около 2,5 тысяч пациентов ежедневно посещают детскую поликлинику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и другим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ми за день через медучреждение проходят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и плановой мощности 380 человек в смену и 720 посетителей в день. За год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щений достигает 550 тысяч. Для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пребывания в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потребовались кардин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затронул весь первый этаж поликлиники, где ведется основна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работа: выдача карт, талонов, разделение потока пациентов.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капремонта стояли задачи максимально расширить пространство,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е зоны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Самые глоб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коснулись регистратуры: закрытые, громоздкие конструкции ушли в прошлое, и теперь пациент может решить свой вопрос без лишних барьеров.

— Создание открытой регистратуры — общемировая практика. Пациенту так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комфортнее, ему не нужно повышать голос. Бывает, повзрослевшие де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иходят в поликлинику, им привычнее решать свои вопросы напрямую, без перегородок,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Татьяна Колба.

Другое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не менее значимое, — оптимизация участковой службы. При отсутствии талонов к своему участковому врачу, пациент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в кабинете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Некоторые функции переданы медицинским сестрам — оформлению документов, выписка справок. Эти меры позволили сократить очередность в два раза, время записи к врачу уменьшилось с получаса до 10-15 минут. В то же время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уделить пациенту. Раньше прием в среднем длился 5 минут, из которых немало времени уходило на заполн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Сейчас средня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врачебного приема — 9 минут. Впервые в учреждении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боту еще одного прививочного кабинета. На протяжении 18 лет, со времени открытия поликлиники, вакцинация детей проводилась в единственном помещении. Теперь же сделать пробу Манту или прививку от гриппа можно не дожидаясь большой очереди.

— Из общего потока выделены пациенты, проходящие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осмотры.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группы теперь могут пройти все обследования на одном этаже, кроме анализов на кровь и мочу. Для них работает отдельный администратор, который составляет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маршрут для каждого, чтобы пройти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цепоч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без разрывов во времени и длительных ожиданий. В целом, прохождение медосмотра теперь можно пройти за 1,5-2 часа,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Людмила Пичуева.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а в учреждении и работа call-центра. Вместо устаревшей телефонной линии в поликлинике установили современную многоканальную систему. В период пиковых нагрузок одномоментно сюда поступает до 50 звонков.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режим позволяет оперативно распределить вызовы и сохранить в памяти пропущенные сигналы.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учреждения потратили 62,2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Кроме ремонта помещений, средства пошли на покупку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ережливая поликлиника», для учреждения приобрели соврем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аппаратуру: рентген-комплекс, стабиллоплатформы, УЗИ-аппараты, лор-комбайны. Новая техника имеет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ные режимы, что также сказывается на скорости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 возможности внедрения новых методик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помимо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в федеральном проекте «Бережливая поликлиника» участвует поликлиника №2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Здесь также проведены работы по расширению пространства, заменены системы коммуникаций, установлена новая удобная мебель, проведе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навигаци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инятых мер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и отзывами посетителей, кото-

рым стало проще попасть к специалистам и комфортнее ожидать своего приема в новых условиях. Принципы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будут внедряться и в работу осталь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омним, 2 март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заявил на медиафоруме ОНФ, что на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будут выдел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В 2018 году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выделяется 1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Это поможет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у по ремонту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областных детских поликлиник.

Показателем результатив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убсидии станет снижение младенческой и детской смертности. На разработку ведомствен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детских поликлиник и поликлинических отделений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2018–2020 годах планируется выделить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3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Оживленные автодороги юга Сахалина и ближайши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обеспечены устойчивой мобильной и интернет-связью

Важны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нацеленный на повыш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дителей и пассажиров, реализован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компаний — сотовых операто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1200 километров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федерального и обла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Основной поток грузов и пассажиров — на юге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на трассах, соединяющих областную столицу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 городами Корсаков, Холмск и Оха. Однако, устойчивая сотовая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нтернет-связь на этих дорогах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отсутствовала. Возникла реальная угроза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ю люд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пути. В случае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сложно было вызвать помощь, а власти не могли предупредить граждан о возможных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Затруднялось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служб при проведении различных работ, мониторинг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Чтобы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требовалось установить в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зонах молчания на островах, базовые станции.

— Сложность была в том, что возводить их требовалось в отдаленных местах, а это требует серьезных затрат, — пояснил Сергей Поп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и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ежду тем, трафик, который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такие базовые станции, заведомо будет небольшим. Поэтому для компаний — операторов обеспечение связью автодорог полностью за свой счет — убыточная затея. Однако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должны руководствоваться не соображениями коммерческой выгоды, а заботитьс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 Поэтому началась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автотрасс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близлежащих небольш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устойчивой сотовой и интернет-связью. К ней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и компании — операторы. Сначала публичн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МТС», затем ПАО «Вымпелком».

Напомним, в Послании к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тметил, что к 2024 году в России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 практически повсеместный быстрый доступ в интернет. Будет заверш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их линий связи к большинству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с численностью жителей более 250 человек, а удаленные небольши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лучат устойчивый доступ через сеть российских спутников.

Решая проблему связи на дорог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зяло на себя самую затратную часть проекта — подготовку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оздание площадок для базовых станци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нтенно-мачтовых сооружений, прокладку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или сооружение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систем энергоснабжения. Операторы отвечали за оборудование базовых станций, строительные-монтажные и пусконаладочные работы.

Первый этап программ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устойчивой связью автодоро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давно завершился. На юге острова установлено 14 базовых станций. Теперь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ликвидированы «зоны молчания» на трассах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Холмска, Корсакова, Невельска и Макарова.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впервые сотовая связь появилась на участках Огоньки — Высокое, Арсентьевка — Тихая, Цапка — Пугачево, Заозерное — Поречье, До-

линск — Стародубское, в районе села Бамбучки и дач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около реки Зеи. Также операторы обеспечили сотовой и интернет-связью главные магистральные автомобильные перевалы — Холмский и Макаровский, а также села Успенское, Мицулевка, Вторая Падь и Такое.

— Теперь, передвигаясь по трассам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Холмск, Корсаков или Невельск, наши абоненты всегда будут на связи, — сказал Виталий Рыбак, директор филиала «МТ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 поможет не только комфортному голосовому общению по мобильному телефону, обеспечит доступ в интернет, но и повысит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 дороге. В случае ДТП или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можно оперативно сообщить о проблеме и вызвать помощь.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в област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с высокой социаль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 показательный пример эффектив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шей компан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никальный 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нял перв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Четвертый этап «Кубка Анны Богалий» по биатлону стартовал 16 марта на новом биатлонном комплекс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стижные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стязания стали первыми соревнованиями на уникальном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портивном объект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которого недавно было завершено.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юные биатлонисты в возрасте от 10 до 17 лет из 11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Сахалинской, Новосибирской, Челябинской, Омской, Томской,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ей, Хабаровского, Алтайского и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ев, Башкирии и Татарстан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турнира, спортсменов и их тренеров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открытии этапа «Кубка Анны Богалий»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 В этом году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которые уже ст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более 200 спортсменов. Отрадно, что в этот раз мы проводим их на новом биатлонном комплексе, который мы так долго ждали. Я считаю хорошим знаком тот факт, что его открытие совпало со стартом этапа «Кубка Анны Богалий». В этом году мы начина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портивной базы для лыжников и биатлонист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этой площадке мы проведем уж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 зимни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и продолжим состязания «Кубок Анны Богалий». Уверен, чт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иатлон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семимильными шагами, и у вас всех в этом виде спорта боль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вайтесь, а мы вам в этом поможем, — отметил Антон Зайцев.

Втора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площадка для занятий биатлоном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вая — в городе Томари) позволяет проводи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среди биатлонистов и лыжников. Также комплекс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тренировок ю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 здесь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спортивного мастера.

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стрельбище на 30 установок с мишенями, штрафной круг и стадион. Протяженность лыжных трасс для конькового и классического хода составляет свыше пяти километров, а лыже-биатлонных — около четырех километров, разминочная трасса и склон для тестирования лыж. Здесь спортсмены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разряды и допуски к всероссийским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оревнованиям.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проекта биатлон станет доступен для тренировок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где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 различные зимние виды спорта. Помимо спортсменов 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смогут посещать вс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гости региона.

Отметим, ч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6-2020 годы», утвержденной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ограмма нацелена на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систематических заняти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россиян, а также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системы подготовк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Так,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портивными занятиями было охвачено более 37%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7 году в регионе ввел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20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и уже четыре —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고려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도경건설-고려인마을 협약

(광주=연합뉴스) 광주고려인마을은 지난 12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사무실에서 도경건설과 '고려인도경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창단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했다. 2018.3.13 [광주고려인마을 제공=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후손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 출범한다.

광주고려인마을은 도경건설과 지난 12일 '고려인도경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 창단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려인도경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는 도경건설의 지원을 받아 오는 4월 창단식을 열고 광주 정착 고려인 동포들의 초·중·고 자녀 20여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고려인마을은 오케스트라단을 통해 독립투사 후손이나 유랑민으로 전락해 힘들게 살아가는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전국 순회공연과 해외 공연에 나설 계획이다.

신현국 도경건설 대표이사는 "독립투사 후손인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그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며 "오케스트라단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재미동포 레이철 양, 4년째 '요리게 오스카상' 후보에 올라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미동포 여성 요리사인 레이철 양 씨가 '요리게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미국 제임스 비어드 상의 '최우수 요리사'(Best Chef) 부문에 4년 연속 후보로 올랐다.



제임스 비어드 재단(JBF)은 "양 씨가 다른 4명의 후보와 함께 '베스트 셰프' 후보에 선정됐다"고 16일 홈페이지(www.jamesbeard.org)를 통해 밝혔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우승자는 오는 5월 7일 시카고 리릭 오페라 극장에서 열리는 시상식 갈라쇼에서 가려진다.

시애틀에서 퓨전한식당 '주울', '레블', '트로브'를 운영하는 양 씨는 TV 음식 전문 프로그램인 '셰프'에 출연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JBF는 매년 미국 전역의 2만여 개 식당과 소속 요리사를 대상으로 '베스트 셰프'를 비롯해 '베스트 뉴 레스토랑', '탁월한 베이커', '탁월한 식당', '탁월한 서비스'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 상은 미국의 요리사 겸 음식 작가인 제임스 비어드(1903~1985년)의 이름을 따 1990년 제정됐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김집(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3월 말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우리말로 깨달다]

새해에 액을 막는 방법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살다보면 예기(豫期)치 않은 나쁜 일이 생깁니다. 참 괴롭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원망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가슴이 팍 막히는 것 같고, 숨을 쉬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게 되고, 가슴을 쥐어뜯게도 됩니다. 내가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칩니다. 하물며 내 가족에게도 나쁜 일이 연달아 일어나기도 합니다.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원망이 가득해 집니다.

나쁜 일이 나쁜 사람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입니다. 나쁜 사람에게만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모두 착한 일만 하지 않을까요? 종교에서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종교에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복이나 벌은 선행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 때 <액(厄)>, <액운(厄運)> 등의 표현을 씁니다.

<액>은 재앙이나 모질고 사나운 운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액이 끼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액이 들어왔다는 의미겠지요. 잘 흘러가던 물에 돌멩이가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액이 끼면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액풀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액을 천천히 풀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운이 트입니다.

우리말에서 액은 주로 <액막이>나 <액땀>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이것은 오는 액을 막거나 작은 액으로 큰 액을 때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은 미리 완벽히 막기도 하지만 대개는 더 큰 액을 작은 곤란으로 막습니다. 즉 액은 들어오기 전뿐 아니라 들어온 후에 막기도 하는 겁니다. 액이 아주 안 들어오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액이 아주 안 들어오면 좋았겠지만 그런 인생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하었을 겁니다. 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민요인 <액막이 타령>은 이러한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노래입니다. '정월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 사월에 막고, 삼월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어루 액이야 어루 액이야 어기여차 액이로구나'에서 보면 액은 우리 삶에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온 액을 다음 달에 막아내는 겁니다. 액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액땀은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긴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가벼운 곤란'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앞으로 닥칠 곤란, 고통보다는 작다는 의미죠. 아니 어쩌면 액땀은 희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액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몸을 다쳐도 액땀입니다. 더 큰 고통을 막아준 것이니 힘들기는 하지만 고마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살면서 나쁜 일은 생깁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수 없겠죠. 액은 들어옵니다. 이 액을 막는 일은 일단 액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분노하고, 한탄하고, 좌절만 해서는 액을 막을 수 없습니다. 들어온 액을 바라보면서 더 커지기 전에 막으려고 해야 합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뚫고,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액이 막아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한식

한식은 문화다! 한식은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 식품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양한 한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겉절이

배추 또는 푸성귀를 소금에 절였다가 갖은 양념에 무쳐 만든 반찬. 겉절이는 생채 개념의 저채류(菹菜類)로서 배추겉절이·상추겉절이 등이 있다.

배추겉절이는 연한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곱게 다진 파·마늘과 고춧가루·간장·설탕·깨소금·참기름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배추가 절어서 숨이 죽으면 물에 행구고, 물기를 꼭 짜서 양념장에 무친다.

상추겉절이는 먼저 상추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곱게 채썬 파와 간장·고춧가루·깨소금·참기름·설탕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그릇에 상추를 한 켠 깔고 양념장을 끼얹는 방법으로 상추 켠썬 양념장이 끼얹어지도록 한다. 겉절이에는 간장 대신 젓국을 넣을 수도 있다.

입춘이 지나면 김장김치가 맛을 잃는다. 체 소임을 다한 것처럼 속살이 물러지고 군내가 난다. 이러 때 입맛을 돋우는 음식으로 겉절이가 제격이다. 겉절이는 열갈이배추를 주로 사용한다. 연한 열갈이배추를 깨끗이 다듬어 4~5센티 길이로 자르고 소금물에 절인다. 한 시간쯤 지나 맑은 물에 살살 흔들어 행귀 물기를 뺀다. 흥고추와 풋고추는 씨를 빼고 큼직하게 어슷썰고 쪽파는 열갈이배추 길이로 자른다. 차게 식힌 찹쌀풀과 흥고추, 마늘, 설탕, 소금을 믹서에 넣고 갈아 양념을 만든다. 절인 열무와 열갈이배추에 쪽파, 붉은 고추, 풋고추, 양념을 넣고 살짝 버무려 향아리에 담는다. 주의할 점은, 너무 주물러 무치면 풋내가 나서 맛이 없다. 겉절이는 담근 뒤 바로 먹을 수 있는 김치로 풋풋한 배추의 맛이



입맛을 산뜻하게 한다.

특히 이 겉절이는 비록 종류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배추로 만든다는 점에서 배추김치와 유사하지만 일반 김치처럼 숙성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으면서 김치맛을 낸다는 점에서 일반 김치가 떨어졌을 때, 또는 아직 김치가 익지 않았을 때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다. 김치의 시원한 맛과 함께 즉석에서 무치는 것이라 경우에 따라 참기름과 깨소금, 또는 시원한 배를 썰어 넣어 함께 무칠 수 있어서 일반 김치와는 또다른 고소한 맛을 지닌다. 특히 김치처럼 숙성된 신맛이 아니라 채소의 신선한 맛을 즐기고 싶을 때 겉절이는 제대로 김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겉절이는 특히 갈비구이와 같은 요리에 곁들여지면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한다. 김치의 신맛이 갈비구이의 고기맛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고소하고 산뜻한 채소요리로 옆에 자리잡는 것이다. (코리안넷)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휴식공원, 방학 기간에 학교 학생들 초대

가가린 문화휴식공원은 3월 24일부터 <제레모크> 레저센터(콤무니스찌체스키 프로스펙트, 2)에서 개최되는 주제별 강연과 활동교실에 참가 희망자들을 접수한다.

이외에도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방학기간에 공원 내에서는 매일 <밭줄 공원(로프 파크)>과 전자 놀이기구, <바다 전투>사격장과 카페가 있는 <엘렉트론(전자)>종합오락시설이 운영된다.

추가정보는 전화25-33-82로 받아볼 수 있다고 공원 홍보실이 전했다.

Парк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овет школьников на каникулах в гости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приглашает с 24 марта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и тематических лекциях,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в досуговом центре "Теремок" по адрес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2.

Кроме то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в дни школьных каникул — с 23 марта по 1 апреля — ежедневно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еревочный парк"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игровой комплекс "Электрон", в котором размещены игровые автоматы, тир "Морской бой", кафе.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25-33-82,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арка.

사할린에서 <2018년 올해의 책> 문학상 공모 시작

쿠즈네초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도서관은 <2018년 올해의 책>문학상 공모에 작품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작품 공모에서 선정된 최우수작은 2019년에 출판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들에게는 더욱 가치있는 작품들을 특별상으로 시상할 권리가 주어진다.

문학상 공모는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 가운데 문학창작 분야의 재능과 능력을 확장하고 지원하며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 11월 30일까지의 첫 단계에서는 문학작품들을 접수하고 12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두 번째 단계로 심사위원들이 우수작품을 선정하게 된다. 우

수작품 선정 결과는 12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학상 공모의 참가 자격은 사할린 주민으로서 현재 사할린주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작품 제출은 이전에 미발표작만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소설, 이야기 모음 등, 작품용모서식은 70페이지 이하(A4 형식, 글꼴 크기 12, 간격 1.5)로 타자하여 제출해야 한다.

작품의 최대 분량은 제한이 없으며 육필원고도 전자 파일로 접수 가능. <올해의 책>콩쿠르 포스터를 하여 citylibrary@mail.ru 로 보내면 된다.

우수작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는 사할린작가동맹, 주기자동맹 회원, 문화 분야 관계자, 중앙도서관 체제의 직원들과 독자 활동가들로 구성된다. 심사위원들은 독자적으로 공모에 제출된 작품들의 평론과 비평을 작성하게 된다.

문의 전화 (4242) 72-42-33.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литературный конкурс «Книга года-2018»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город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им. Кузнецова продолжает прием работ на литературный конкурс «Книга года-2018».

Как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главным призом станет издание книги победителя в 2019 году. Жюри оставляет за собой право отмечать специальными призами наиболее достойные конкурс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нкурс направлен на выявление, поддержку и поощрение талантов и дарований в сфере литератур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ред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по 30 ноября 2018 года проводится прием произведений. На втором – с 1 по 25 декабря – жюри отберет достойные работы. Результаты конкурса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25 декабря.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островитяне, достигшие 18 лет и проживающ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рассмотрению принимаются ранее не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мож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на конкурс роман, повесть и/или подборку рассказов общим объемом не менее 70 страниц печатного текста (формат А4, шрифт 12-го размера, интервал 1,5). Максимальный объем произведения не ограничен. Рукописи принимаются тольк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по адресу: citylibrary@mail.ru с пометкой «НА КОНКУРС «КНИГА ГОДА».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лауреатов формируется жюри из чле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писатель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сферы культуры и сотрудников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библиотечной системы и активных читателей. Жюр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азрабатывает критерии и технологии оценки материалов,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на конкурс.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242) 72-42-33.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клама

| | | | |
|---|--|--|---|
|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 |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 |
|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
|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